

농심켈로그 리얼 그레놀라 오리지널

In-context research

202400919 반서윤

Contents

01. 제품 선정

02. 마케팅의 문제 및 조사 목표 정의

03. Persona Matching

04. Pain point Analysis

05. In-depth Interview

06. Curation Map

07. Marketing Strategy

제품 선정

1. 플레이크 시장을 넘어서는 그래놀라·뮤즐리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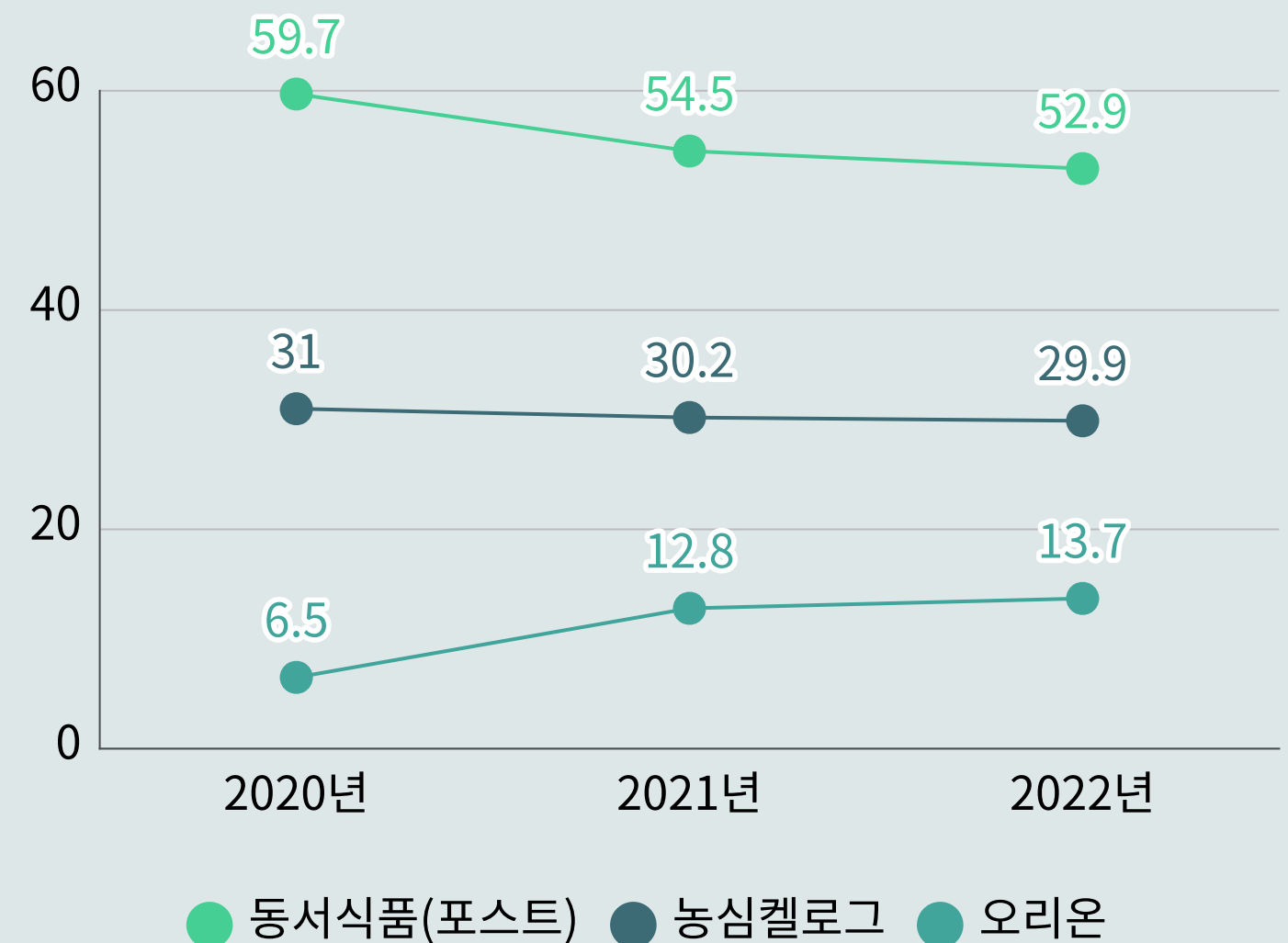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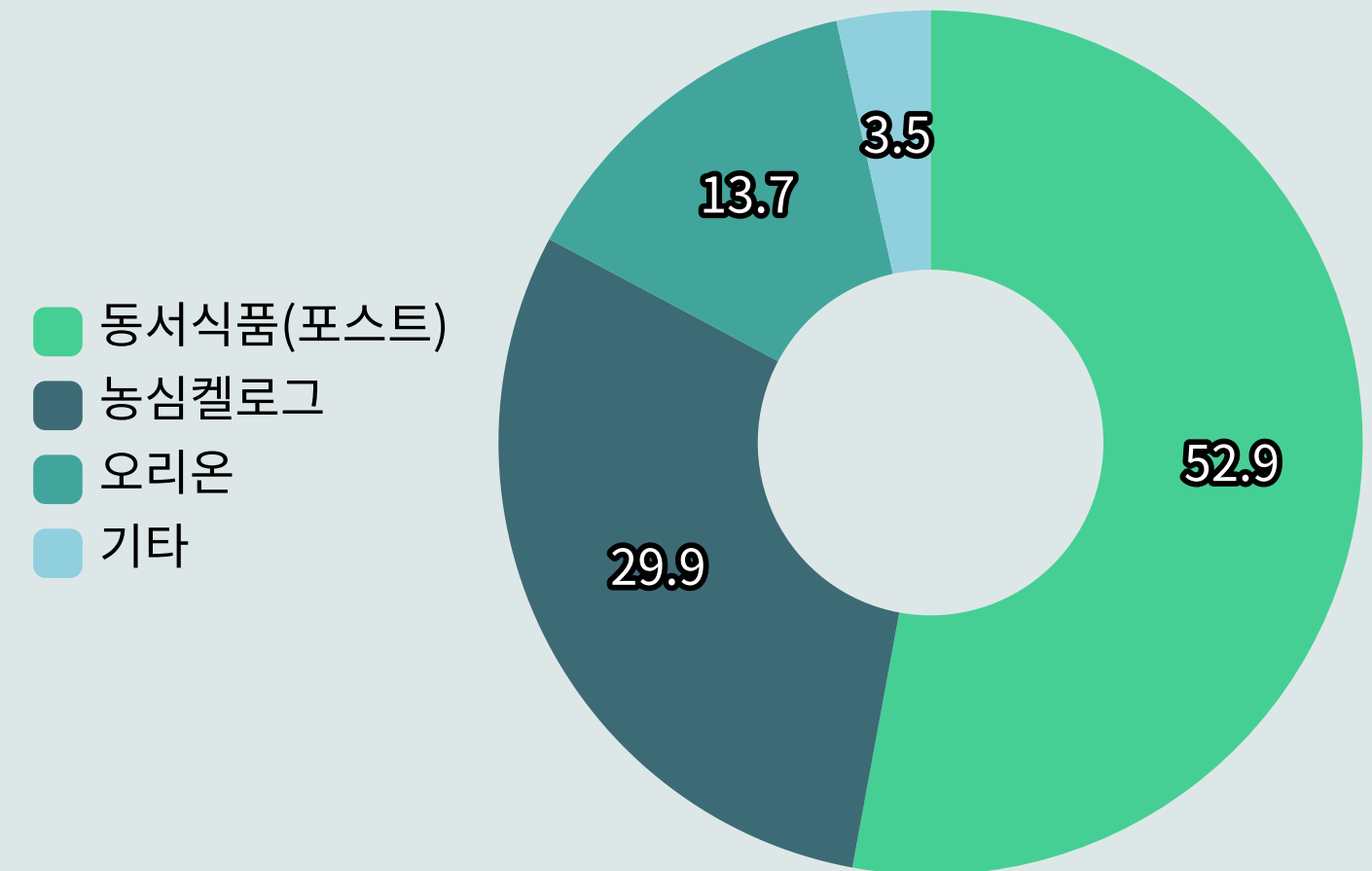
국내 시리얼 시장 성장세는 그래놀라와 뮤즐리 제품이 이끌고 있으며, 그래놀라와 뮤즐리 판매액은 2021년 처음으로 플레이크 매출액을 앞질러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섰다.

2. 시장점유율 2위에서 고전하는 농심켈로그

농심켈로그는 그래놀라 시장에서 2위에 머물러 있는 한편 후발주자인 오리온은 점차 점유율을 높이는 추세다.

3. 농심켈로그 제품 선정

켈로그 그래놀라 중 프리미엄 라인의 '리얼 그래놀라 오리지널' 제품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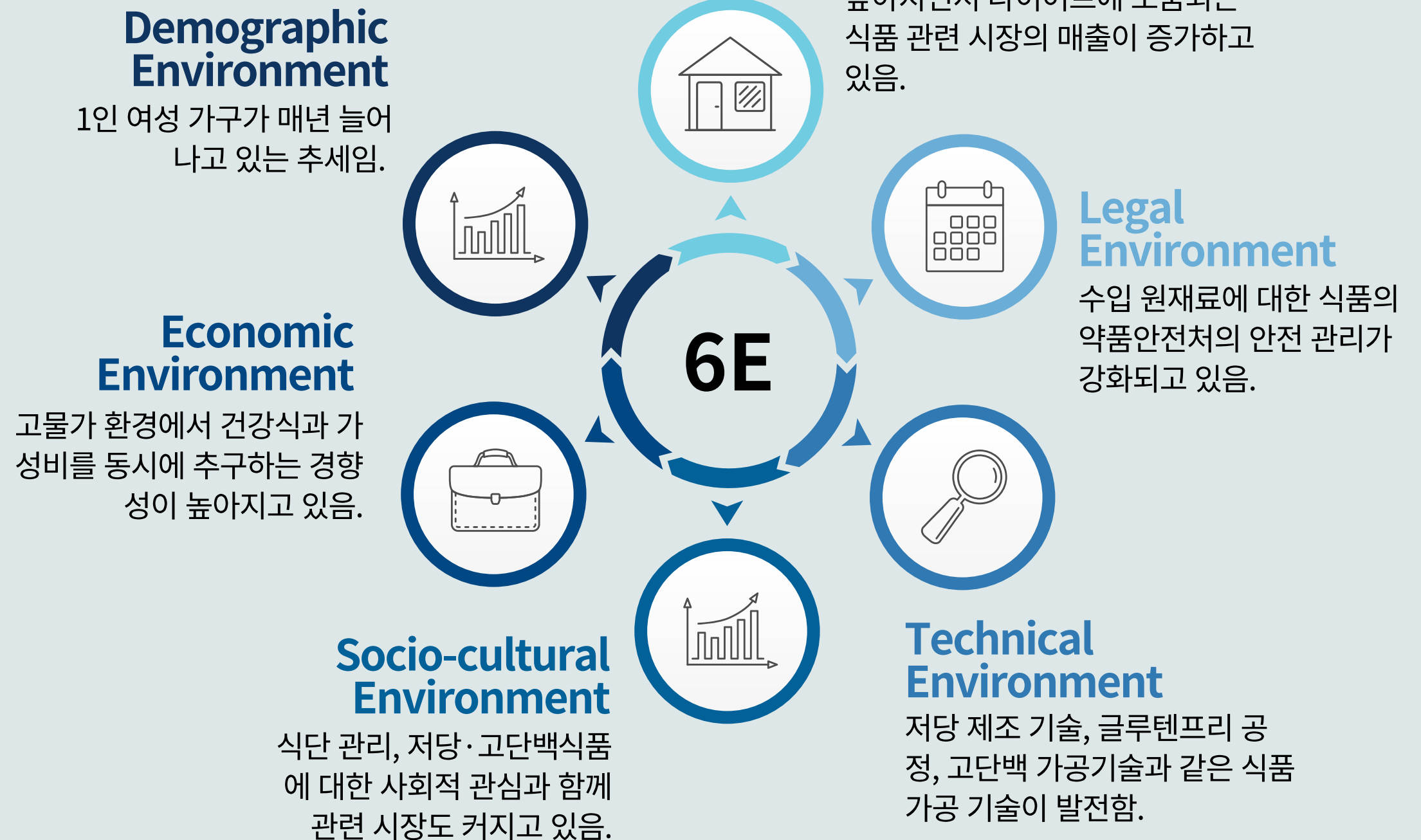


마케팅의 문제 및 조사 목표 정의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6E 분석



Persona matching



김**

- ✓ 성별 여
- ✓ 나이 만 20세
- ✓ 직업 대학생
- ✓ 거주지 경기도의 부모님 집
- ✓ 가족관계 부, 모
- ✓ 라이프스타일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지향함. 패션에 관심있는 만큼 건강미 있는 몸을 가꾸고자 함.
- ✓ 취미생활 러닝, 쇼핑
- ✓ 식생활 평소에도 식단 관리를 하며 간식거리도 다이어트 간식을 자주 애용함. 하루에 먹은 것들은 앱을 통해 칼로리 및 영양성분을 기록하면서 생활함.

Pain point analysis

Scene



OTP

8시 37분 경 냉장고에서 그릭요거트를 꺼내고 거치대에서 그릇과 숟가락을 꺼낸다.

8시 38분 경 그릭요거트를 그릇에 옮겨담는다.

8시 40분 경 그릭요거트 뚜껑을 닫고 다시 냉장고에 갖다놓는다.

8시 41분 경 리얼 그래놀라 오리지널을 가져와서 봉지를 연 후 남은 양을 확인하고 그릭요거트 위에 봉지째로 붓는다.

Pain Point

그릭요거트는 대용량을 사거나 만들어두는 게 가격·소비 면에서 유리함에도 냉장고에 두기엔 부피 차이가 커서 소용량씩만 구매하게 됨.

혹시나 옮겨담으면서 식탁에 흘릴까봐 숟가락에 퍼담은 다음 멈췄한 후 그릇으로 가져감. 그러느라 그릇에 담는 데에도 약간의 시간이 걸림.

뚜껑으로 완전밀폐가 되는 않아 냉장고 안팎에서 옆으로 기우는 일이 발생하면 썰 가능성이 있음.

매일 같은 양의 식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김.

Pain point analysis



8시 41분 경 중간중간
봉지 안을 확인하면서
그레놀라를 붓는 힘을
조절한다.

그레놀라가 일정한 속도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잘
안 나오면 자꾸 봉지 안을
확인하게 되며, 조절이 안
돼서 그레놀라가 그릇 밖으
로 튕겨나가기도 함.



8시 42분 경 리얼 그레
놀라 오리지널 제품 봉
지의 지퍼를 닫는다.

급하게 닫느라 지퍼가 잘
안 눌러서 완전히 밀봉되
지 않음.



8시 42분 경 꺼내기 쉬
운 위치에 그레놀라 봉
지를 둔다.

제품에는 서늘한 곳에 보
관하라고 되어 있지만 바
쁜 아침에 구석에서 그레
놀라를 꺼내고 넣기엔 불
편함이 있음.



8시 51분 경 아침식사를
마친 후 그릇과 숟가락을
설거지한다.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는데 소매
에 물이 묻을까봐 조심하면서
함.



8시 52분 경 설거지한
그릇과 숟가락을 거치
대에 둔다.

그릇이 유리이다 보니
거치대에 두는 과정에
서 그릇끼리 부딪히거
나 거치대와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남.

In-depth interview

Q1 왜 그래놀라와 그릭요거트를 같이 꺼내드시는 건가요?

그래놀라만 먹으면 아침으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그릭요거트랑 먹으면 조합도 좋고 해서 같이 먹고 있어요.

Q2 왜 굳이 그릭요거트를 옮겨담아서 먹는 건가요? 그릭요거트 통 위에 바로 그래놀라를 부려 먹으면 더 빠르지 않나요?

이 그릭요거트가 두 번 분량 정도로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남는 걸 다 먹는 게 아니면 이렇게 옮겨담아서 먹고 있어요. 침 묻은 숟가락을 그대로 퍼서 먹으면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요.

Q3 왜 두 번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그릭요거트만 사놓나요?

아무래도 저 혼자 사용하는 냉장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릭요거트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도 좀 그렇고 대용량을 두면 매번 꺼내서 그릇에 옮겨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Q4 왜 그래놀라 봉지 안에 얼마나 남았나를 확인하시는 건가요?

얼마나 남았는지 봐야 앞으로 며칠동안 대충 얼마큼씩 일정하게 분배해 먹을 건지 계산해볼 수 있어요.

Q5 왜 일정하게 분배해 먹는 게 중요한가요?

건강과 약간의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는 거여서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다이어트는 하루 정해진 칼로리랑 영양분을 알맞게 맞추는 게 중요해서 그릭요거트는 100-150g, 그래놀라는 30-40g씩 먹어야 식단에 맞거든요. 근데 바쁠 때는 아침 자체도 못 먹고 갈 때도 있죠.

Q6 왜 식사를 못하고 가는 건가요?

일정이 있어서 아침부터 빨리 나가야 되면 집에서 아침(을 먹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일단 꺼내먹는 것도 일이긴 한데 뒷정리도 해야 하니까요.

In-depth interview

Q7

그래놀라 봉지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햇빛이 닿는 이런 곳에 제품을 두시는 건가요?

그냥 손이 닿기 좋은 위치에 뒀야 꾸준히 먹게 돼서요. 지퍼를 잠글 때도 잘 안 닫히고 위치도 아무데나 두다 보니까 좀 눅눅해지긴 하는데 제가 아침마다 먹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Q8

설거지는 왜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하시는 건가요?

설거짓거리도 별로 없는데 귀찮기도 하고 고무장갑을 끼면 그 특유의 고무냄새가 나는데 이거 조금 설거지하려고 그 냄새가 나게 하는 건 싫어서요.

Q9

실제 설거지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면 사실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건데, 그럼에도 설거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가요?

그래도 집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침식사를 하는 시간'에 설거지까지 포함된 거니까 심리적으로 더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랑 같이 사니까 아침에 아직 자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서 혹시 껌까 봐 설거지를 할 때나 끝나고 그릇을 내려놓을 때 좀 조심스럽긴 해요.

Curation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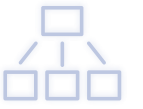


Marketing Strategy

그릭요거트와 그래놀라를 각각 꺼내서 그릇에 담는 과정, 그리고 그 뒷처리까지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pain point를 최소화시킨 제안

접근 가능한 전략

그래놀라 개별포장 소분



그래놀라 적정량인 30-40g을 소분해서 각각을 개별포장하여 그래놀라 봉지에 넣은 상품 개발

편의점 그릭요거트 제품과의 협업



바쁜 아침에는 그래놀라 개별포장 한 봉지를 들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파는 소용량 그릭요거트와 함께 먹게끔 하는 전략. 그릭요거트 회사와 협업하여 그래놀라 개별포장지 밖에 QR코드를 뒤서 해당 그릭요거트 제품을 사면 할인해주는 쿠폰 지급하기